

 과천도시공사 www.gcuc.or.kr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부서	경영혁신부
		담당자	홍보담당 한지선 jloveshan@gcuc.or.kr
	설명자료	연락처	02-500-1191

3기 신도시등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할 도시개발실장 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천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채용 제공모 추진

- 7월 30일 경인일보 <과천도시공사, 감사 중인 기관 직원 채용 ‘제공모’ 불가피>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임

- 보도 주요내용
 - 도시공사가 전 직장에서 감사원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직원을 개발실장으로 뽑았다가 실장직을 제공모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 논란이 일고 있다.
 - 최근 출범 후 반년이 지나도록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 보상과 개발, 판매 등을 진행할 핵심부서 책임자를 잘못 선발해 공백을 만드는 등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도시공사 입장
 - 과천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19일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공사로 전환, 도시개발실 직제를 신설하여 2020년 2월부터 과천시 소속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 관련 전문인력 5명을(실장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채용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채용공고를 하여 5월 22일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6월 1일 적격자가 없는 개발사업팀장을 제외한 최종합격자 4명을 발표하고 3명(팀장1, 직원2)에 대해 6월 8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후 임용후보등록 과정에서 실장후보자가 감사원 감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도시개발실장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접수될 때까지 임용유예 신청을 하여 7월 31일까지 임용유예 상태입니다.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하는 것이 통상례이나, 도시개발실장 응모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합격자 없이 결정한 것이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유예기간 경과 후 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도시개발실장은 공석이나 과천시 파견공무원중 5급 과장급이 실장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팀장 1명과 직원 2명은 타 공사에서 개발사업 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준비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보상 및 공사채발행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현재 공석중인 실장과 개발사업팀장직 채용도 관련부서와 협의후 적임자를 채용하여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